

- '나는 이제 먼저 죽는다'라는 말도
- 이때의 '나'는 세상을 떠난 '누이'를 가리킨다.
- **못다 이르고 가는늑고**
- 전하지 못하고 나의 누이는 안타깝게 세상을 뜨고 말았구나.
- 이르지 못하고 : '누이'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여, 이승을 떠나는 하직 인사조차 화자에게 전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.
-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**누이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**이 담겨 있는 구절이다.
- **어느 이른 가을 바람에**
- 어느 때보다 일찍 불어온 차가운 가을 바람에
- **이에 저에 떨어질 앞같이,**
- 여기 저기 힘없이 떨어지는 앞처럼
- 누이의 죽음이 바람에 떨어지는 앞에 비유되고 있는 대목으로, 앞의 생명이 바람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점에서, "유한한 생명인 '앞'과 유한한 생명을 지배하는 힘인 '바람'이('바람'은 우리의 모든 생이 사라져도 저 하늘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.) 대조를 이루며 드러나고 있다"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.
- 죽은 누이를 가을의 이름 바람에 떨어지는 앞에 비유하였다. '이른 바람'이라는 시어는 누이가 요절했음을 암시한다.
- **한 가지에 나고**
- 같은 부모 아래에서 누이와 나는 태어났건만
- **가는 곳 모르논제!**
- 이승 너머 저 세계의 어느 곳으로 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,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(유한한 이 생명이라는 것이) 참으로 허망할 뿐이로다.
- '한 가지'는 같은 부모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, 한 아버지가 아래 태어났지만 헤어지고 가는 곳을 모른다는 점에서 안타까움, 인생무상의 정서가 드러난다.
- **아, 미타찰(彌陀刹)에 만날 나(화자)는**
- 아! 저 극락에서 누이를 만나게 될 나는 → 아! 나는 머지않아 저 극락에서 누이를 만드시 만나게 될 것이니, 그동안 나는
- '두려움', '아쉬움', '무상함에서 비롯되는 탄식'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보이던 화자가, '아오'를 기점으로 하여, '미타찰에서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'이라는 긍정의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영탄의 방식을 통해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.
- **도(道) 닦아 기다리련다!**
- 지금의 이 이승에서 도를 닦으며, 차분히, 누이와의 만남을 기다릴 것이로다.
- '나'는 불교적 믿음을 가지고 죽은 누이와 재회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. 혈육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한 것이다.

☑ 특징

- 10구체 향가 / 의식요
- 추모적, 애상적, 비유적, 종교적 성격
- 삶과 죽음의 문제를 자연의 섭리에 비유하여 형상화함.
- 정제되고 세련된 기교와 비유를 통해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함.

✓ 어구의 의미

이른 바람	• 이른: 일찍 찾아온, 예기치 못한 • 바람: 시련, 가혹한 운명 → 젊은 나이에 죽음
떨어질 앞	• 떨어질: 죽음 • 앞: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존재 → 죽은 누이
한 가지	• 한 부모, 같은 핏줄



<향가의 해독과 작품 해석>

☑ 시구 풀이

- 해독에 따라 향가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.
- 노래 속 글자들을 어떻게 풀어 이해하는가에 따라 여러 의미가 가능하다.
- 이는 근본적으로 **향찰(香札)**은 한자의 음과 뜻을 활용하여 향가를 표기하던 표기법을 가리킴 해독이 어렵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기도 한다.
- 향찰의 해독이 어려운 이유는, 향가 내 해당 문자가 한자의 음을 빌어온 것인지 뜻을 빌어온 것인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.
- 해독이 어느 정도 일치된 작품은 해석의 폭은 넓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해석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. 「제망매가」 제2

행의 '次盼伊遣(차힐이견)'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.

- 해석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으나 해석이 다양하게 가능한 예라 할 수 있다.

• '次盼伊遣(차힐이견)'은 한자의 음을 중심으로 분석한 입장음 차와 한자의 뜻과 음을 함께 고려한 입장훈독과 음차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독될 수 있다.

- '뜻과 음을 함께 고려한다'는 말은 향가 내 향찰을 해독함에 있어서, '아, 이 글자는 한자의 뜻을 따왔고 저 글자는 음을 따왔구나'라는 식으로 해독하는 것을 의미한다.

• 전자에 따르면[한자의 음을 중심으로 분석한 입장에 따르면] 이 부분은 '저히고[두렵고, '저홀이고'生 → 낳고]

- (가)의 2행 후반부가 '두렵고'로 되어 있기에, (가)가 '次盼伊遣(차힐이견)'을 한자의 음을 중심으로 해독한 것임을 알 수 있다.

• ㉔眠→ 자고(영원히 죽고),

- '眠'은 '잠잘 면'이라는 한자이다.

- 만약 (가) 2행의 '次盼伊遣(차힐이견)'을 음을 중심으로 해독하는 가운데 ㉔에 따라 해독한다면, 화자가 '죽음'을 '영원한 잠(안식)'으로 인식하고 있다 할 수 있고, '죽음'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'삶에 대한 애착'과는 별 관련이 없을 것이다.

• '즈홀이고[의지하고] 등으로,

- '저회고'두렵고, '저홀이고'낳고 / 자고, '즈홀이고'의지하고 모두 한자의 음을 중심으로 분석했을 때 가능한 해독들이다.

• 후자는

- 한자의 뜻과 음을 함께 고려한 입장에 따르면, '次盼伊遣(차힐이견)'은

• '멈히리견'머물거니와, '머뭇거리고'머뭇거리고, '아즐잇고'아찌 하릿고 등으로 읽을 수 있다.

- 한자의 음과 뜻 중 무엇을 중심으로 분석하는가에 따라 향가의 구절이 다양하게 풀이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.

• 이러한 해독에 따라 작품의 주제와 분위기는 달라진다.

- 구절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화자의 태도와 정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.

• '차힐이견'을 '두렵고로 해독한다면

- (가)에 해당한다.

• 작품의 시작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화자를 만날 수 있고,

- (가)는 '次盼伊遣(차힐이견)'을 '두렵고'로 풀이하고 있기에, (가)의 1~4행과 관련하여, '죽음을 두려워하는 정서를 느낄 수 있다.

• '의지하고'로 읽는다면 죽음의 순간 절대자에게 귀의하려는 화자를 발견할 수도 있다.

- 의지하고'로 읽는 것은 한자의 음을 중심으로 해독하는 것이다.

• 그리고 '머뭇거리고'의 해독을 따른다면

- '머뭇거리고'는 한자의 뜻과 음을 함께 고려한 입장에 따른 해독이다.

• 죽음의 문턱에서 삶에 대해 미련을 느끼는 화자의 마음을 읽을 수도 있다.

- 이 경우, 화자의 내면은 '아, 누이가 죽어 너무도 마음이 아파, 나도 누이를 따라 죽고 싶지만, 차마 이 생을 버릴 수가 없구나'가 될 것이다.

• 이처럼 향가 작품은 시어의 해독이 단순한 사구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작품 전체 주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.

- 구체적인 구절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작품 전체의 주제와 분위기가 변화를 겪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.

※ 월명사, <제망매가(祭亡妹歌)>

- 주제: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와 죽음에 대한 종교적 초극

- 해제: 이 작품은 신라 경덕왕 때 승려 월명사가 지은 10구체 향가로 <삼국유사>에 기록되어 있다. 일찍 죽은 누이를 추모한 노래로, 삶과 죽음의 문제를 비유를 통해 깊이 다루고 있다.

- 구성

1~4행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 삶과 죽음에 대해 고뇌하고 변명함.

5~8행 삶과 죽음의 무상성 심화

9~10행 불교적 사유를 통한 고뇌의 극복

※ <향가의 해독과 작품 해석>

- 주제: 향가 해독에 따른 작품 해석의 다양성

- 해제: 이 글은 향가 시어의 해독에 따라 작품의 분위기, 성격, 주제 등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음을 <제망매가>의 '차힐이견'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.

- 구성

1문단 향찰 해독에 따라 여러 해석이 가능함.

2문단 '차힐이견'에 대한 음차, 훈독과 음차 해독의 사례

3문단 해독에 따라 달라지는 작품의 성격

4문단 해독에 따라 작품의 주제가 달라질 수 있음



'개념' 있는 키크샘

1. 1~2행은 죽은 누이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□□거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,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자의 □□□□이 담겨 있다.
2. 5~8행에서 화자와 누이의 죽음이 한 가지에 난 앞이 여기 저기에 떨어지는 □□□□에 비유되어 있다.
3. 9~10행에서 화자는 불교적 □□를 통해 누이를 만날 것을 소망한다.
4. '제망매가'는 죽음에 대한 대상의 태도를 기준으로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.
[O X]
5. 1~4행에서 화자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누이로 하여금 '간다'는 말도 못하고 가게 했다.
[O X]
6. 1~4행에서 누이를 떠나보내는 인간적 고통과 탄식이 드러나 있다.
[O X]
7. 5~6행에서 자연물의 대조적 속성을 이용하여 유한한 인간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.
[O X]
8. 8행에서 고뇌와 번민의 순간의 아픔과 생명의 무상성을 극복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.
[O X]
9. 삶과 죽음의 문제를 자연 현상에 비유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.
[O X]
10. '次勝伊遣(차힐이견)'의 다양한 해석은 향찰 해독의 어려움과 관련되어 있다.
[O X]
11. '次勝伊遣(차힐이견)'을 훈독과 음차를 함께 고려하여 분석시 '멈흐리건'[머물거니와], '머뭇그리고'[머뭇거리고], '즈홀이고'[의지하고] 등으로 읽을 수 있다.
[O X]
12. '次勝伊遣(차힐이견)'를 '두렵고'에서 '머뭇거리고'로 해독한다면 죽음의 문턱에서 삶에 대한 미련을 느끼는 누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.
[O X]
13. 9행의 영탄의 방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?
[O X]



제망매가(祭亡妹歌) | 월명사

향가의 해독과 작품 해석 | -

[개념있는 킵공]

- ①머뭇, 안타까움 ②자연 현상 ③득도 ④X ⑤X ⑥O
⑦O ⑧X ⑨O ⑩O ⑪X ⑫X ⑬시상 전환

